

리용핑(李永平)의 《주링의 모험(朱鷓書)》 연구*

— 상징계에서 기호계의 문턱을 배회하기

高韻璇**

<목 차>

1. 들어가며
2. 식민 공모자로 동일시된 원주민과 화인(華人)
3. '성장'과 '재해석'이 없는 소녀 영웅 이야기
4. 마치며

1. 들어가며

리용핑(1947-2017)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Borneo)섬 북부 사라왁(Sarawak) 주 쿠칭(Kuching) 성 출신으로, 1966년 첫 작품을 발표한 뒤 타이완으로 이주하여 2017년까지 타이완에서 창작활동을 지속한 작가이다.¹⁾ '국외자의 눈'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에 가려진 타이완 사회의 타락과 식민의 잔재,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와의 갈등을 신랄하게 폭로한 《지링의 연대기(吉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4766).

**釜山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pink1208@hanmail.net)

1) 리용핑이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한 연도는 1967년(詹閔旭, <大河의旅程: 李永平談小說>, 《印刻文學生活誌》 4卷10期(2008.6)) 또는 미국으로 유학가기 직전인 1976년(陳允元, <棄, 背叛與回家之路: 李永平《雨說霏霏》中的雙鄉追認>, 《臺灣文學研究學報》 第13期(2011.10) 각주 36번)으로 평단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정확하게는 1987년에야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한다.(張錦忠, <記憶, 創傷與李永平小說里的歷史: 重讀《婆羅洲之子》與《拉子婦》>, 《揚子江評論》(2013.5期) 각주 10번 참고.)

陵春秋》(1986)가 제9회 時報文學獎을 받으면서 타이완 문단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²⁾ 이후 발표한 《해동청(海東靑: 臺北的一則寓言)》(1992), 《주링의 신선나라 유람기(朱鶴漫遊仙境)》(1998)에서 장제스 정권에 대한 시각과 롤리타 콤플렉스 혐의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지만,³⁾ 성장기를 보냈던 보르네오 섬을 배경으로 한 《대하의 끝에서(大河盡頭(上))》(2008)가 2010년 제3회 '홍루몽상: 세계화문(華文)장편소설 추천상'을 받으면서 말레이시아 출신 2세대 화인작가의 입지를 다졌다.⁴⁾

리용핑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출신 작가들이 타이완 독서시장에서 시선을 끌 수 있었던 것은, 이국적인 밀립 풍경 및 황하문명권과 다른 폴리네시안 문화를 바탕으로, 20세기 이후 한 공간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했던 서로 다른 에스닉 간의 갈등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독자의 '이국정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하나의 '소비 상품'으로 전략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품이 보여주는 동남아시아 사회의 포스트식민 상황과 다양한 에스닉·문화 갈등은 타이완 사회를 재고해 볼 수 있는 반면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이완 평단에서는 이들의 문제의식을 통해 타이완의 포스트식민에 관한 사유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⁵⁾

리용핑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쓴 <토인 숙모(拉子婦)>(1968)는 그의 문학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연위안수(顏元叔)로부터 “박해받는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소설로서 집단 폭력의 기저에는 인간의 타종족에 대한 우월감이 내재되

2) 이 작품은 1999년 《亞洲週刊》에서 선정한 '20世紀中文小說100強'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3) 王德威, <原鄉想像·浪子文學>, 《李永平自選集 1968-2002》(麥田出版, 2003), 15-22쪽.

4) 陳芳明, 《臺灣新文學史(下)》(麥田出版, 2011), 709쪽. 1949년 대륙 중국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고 장제스가 타이완에서 '화교우대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출신 화교들이 대륙 중국 대신 타이완으로 많이 건너왔는데, 리용핑은 2세대에 속한다. 華文은 중국어의 확대된 개념으로, 세계 각지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중국어 계열을 통칭한다. 《大河盡頭(下)》(2010)는 출판된 해에 《亞洲週刊》에서 '全球10大中文小說'로 선정되었다.

5) 陳大為, <躍入隱喻的雨林: 導讀當代馬華文學>, 《誠品好讀》13期(2001.8), 陳大為, <當代馬華文學的三大板塊>, 《2003海峽兩岸華文文學學術研討會》(中壢: 南亞技術學院通識教育中心, 2003.12), 詹閔旭, <華語語系的跨國連結: 臺灣-馬華文學>, 《臺大文士哲學報》第78期(2013) 참고.

어 있음”을 보여주고, 이러한 “종족 우월감은 보르네오 사회의 이민자이자 소수자(minority)인 중국인들에게서도 발견됨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⁶⁾

주지하듯 16-18세기를 거치면서 동남아시아 사회는 차차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유럽 사회에 필요한 물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동남아시아 무역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천연자원을 개발할 노동력이 필요했던 유럽인들은, 인도와 중국 해안 지역의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이민을 장려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각 지역으로 진출하게 된 중국인 이민자들은 통치자 유럽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피지배자이자 소수자였지만, 토착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간 고용층으로 성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⁷⁾ 리용평의 <토인 숙모>는 조국(중국)에 대한 향수에만 집중되어 있던 화인들의 시선을 확장시켜 다종족·다문화 사회에 봉인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하의 끝에서》를 포함하여 리용평의 생애 후반 작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보르네오 3부곡’⁸⁾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자신의 중국성(Chineseness)에 대한 인식과 여성관이 논란을 일으키자 휴식기를 가졌던 리용평은, 성장기를 보낸 보르네오를 배경으로 새롭게 창작을 시작했는데 《진눈깨비 부슬부슬 내리고》에서는 식민 통치와 공모했던 화인의 역사를 쿵칭 성의 화인 사회를 중심으로 다뤘다. 이후 사라와 주(《대하의 끝에서

6) 원래 제목은 <土婦的血>로 《大學新聞》(第245期, 1968.6.20.)에 게재되었다. 리용평이 타이완에서 발표한 첫 작품이다. 나중에 수정한 제목이 널리 알려져 있는 <토인 숙모>(《大學雜誌》 第11期, 1968)이다. 顏元叔, <評拉子婦>, 《拉子婦》(華新, 1976, 167-169쪽 수록)(張錦忠, <記憶, 創傷與李永平小說里的歷史: 重讀《婆羅洲之子》與《拉子婦》>, 《揚子江評論》(2013.5期), 33쪽에서 재인용.)

7) 조흥국 외, 《동남아의 화인사회》(전통과현대, 2000, 3장, 4장, 6장 참고), 매리 하이듀즈 저, 방장식·김동업 공역, 《동남아의 역사와 문화》(솔과학, 2012, 2장, 4장, 5장 참고.)

8) 자타공인 《진눈깨비 부슬부슬 내리고(雨雪霏霏)》(2002), 《대하의 끝에서(상·하)》(하권은 2010년 발표), 《주렁의 모험》(2015)을 묶어서 ‘보르네오 3부곡’이라고 한다. (李永平, <寫在《雨雪霏霏》卷前>, 《雨雪霏霏》, 16쪽.)

(상·하)》)로 확대하더니 3부곡의 마지막인 《주링의 모험》에서는 시간적으로 백인 라자(Raja; 브루나이(Brunei)의 지도자인 술탄(sultan)에게 봉토(封土)를 받은 왕국 내의 지역 수장(首長)을 지칭)가 통치했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시야에 포함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리용핑의 작품은 보르네오 토착민과 다른 혈통·문화를 가진 이주민들 사이에 은폐되어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것을 재현하는 작중 화자의 시선과 리용핑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⁹⁾

리용핑은 자신의 창작 동기로서 ‘속죄와 참회’를 언급한 바 있다.¹⁰⁾ 소설을 통해 자신이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속죄하고, 타이완이 아닌 보르네오를 배경으로 하는 창작이 두 개의 섬(보르네오와 타이완 또는 남양성과 중국성) 사이에서 방랑하던 마음의 눈을 떠서, 사물과 현실을 ‘見山又是山(있는 그대로 보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이다.¹¹⁾ 그런 점에서 ‘보르네오 3부곡’ 중 마무리 단계에 속하는 《주링의 모험》은 리용핑이 타인(異族·남녀·성인과 아이)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로이 정립하게 되는지, 그래서 자신의 방황하는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텍스트이다. 아울러 이 소설은 《지링의 연대기》에서부터 등장하던 소녀 ‘주링’이 서사담화에서 핵심적인 주인공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여성으로 등장하는 첫 작품이다. 그러므로 페도필리아(pedophilia) 혐의까지 받았던 리용핑의 여성성에 대한 인식을 정리해볼 수 있는 적절한 텍스트이기도 하다.¹²⁾

-
- 9) 리용핑의 작품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한 대표 학자들의 논문 9편과 리용핑의 인터뷰 3편을 수록한 단행본으로는 高嘉謙 編, 《見山又是山: 李永平研究》(麥田出版, 2017)를 참고하시오.
- 10) 伍燕翎·施慧敏 整理, <用小說對人生說對不起: 李永平放談錄(下)>, 《星洲日報·文藝春秋》(2009.3.22.), www.sinchew.com.my/content/content_1133390.html(검색일: 2020.1.23.)
- 11) 李永平, <寫在《雨雪霏霏》卷前>, 《雨雪霏霏》, 13-14쪽. ‘見山還是山’의 원래 출처는 宋代의 고승 靑原惟信禪師의 말로, “見山祇是山 見水祇是水”을 리용핑이 ‘見山又是山’으로 인용한 것이다. 한국에는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설법으로 전언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기’에 대한 해석을 마크 엡스타인 저, 이성동 옮김, 《트라우마 사용설명서》(불광출판사, 2014)와 이진경, 《불교를 철학하다》(한겨레출판, 2016)에 근거하여 풀이했음을 밝혀둔다.
- 12) 리용핑의 작품에는 속죄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많이 등장한다.(黃美儀, <漫遊與女性的

리용핑 사후, 타이완에서는 그가 보르네오에서 발표한 생애 첫 소설 <보르네오의 아들(婆羅洲之子)>과 마지막 소설 <신협너도>를 출판하는 등 그의 작품 세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¹³⁾ 하지만 각국의 다양한 문학을 통해 삶 또는 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을 상상하고자 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주링의 모험》은 '보르네오 3부곡'을 쓰기 전에 제기되었던 리용핑의 한계가 전반적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으로 읽힌다. 비록 타이완 문단에서는 화인 2세대를 대표하는 한 작가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느라 이 작품의 문제점보다는 문학 생애 전반과 연결시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지만 말이다.¹⁴⁾

본고에서는 '見山不是山, 見水不是水'의 단계에서 식민지배자/피식민자, 남성/여성, 가해자/피해자 사이에서 화인의 위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리용핑의 시각이 '관계 맺기'에서 더 이상 새로운 출로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담보된 상태에 머물게 되었는지, 서사성의 요소들 중에서도 사건의 전개·해소 양상과 스토리를 끌고 가는 소녀 캐릭터의 성격 및 발전 양상, 스토리 중간에 등장하는 보충적 사건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를 통해 화인 2세대를 대표하는 작가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인 2세대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문학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고자 하는 독자

探索: 李永平小說主題研究>(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3), 72-94쪽 참고.) 하지만 이 작품속의 '주링'은 《주링의 신선나라 유람기》에서 보여준 '관찰자'이자 '기록자'에만 머물지 않고, 작중 갈등을 해결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여성 캐릭터와 다르다. 이 작품에서 탄력을 받은 리용핑은 여성 형骸를 주인공으로 한 무협서사 <신협너도(新俠女圖)>를 《文訊》에 연재(총13회 게재, 사후 14회 원고 발견, 麥田出版, 2018 단행본 출간)하는 도중에 작고했다.(張錦忠, <書評: 從《朱鶴書》到李鶴書, 未完的武俠夢, 逝去的武林: 評李永平的《新俠女圖》>(2018.8.6.), <https://www.openbook.org.tw/article/p-19482>(검색일: 2020.1.23.)

13) 리용핑이 18세에 쓴 증편소설 <보르네오의 아들>은 1966년 제3회 보르네오문화국(Borneo Literature Bureau)이 주재한 문학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작품(1968년, 쿠칭에서 출판됨)으로, 보르네오 도착 원주민과 중국 이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大祿士'를 통해 다종족 사회에서 발생하게 되는 서로에 대한 편견과 이로 인한 정체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76년 타이완에서 출판된 단행본 《拉子婦》(華新)를 통해 소개된 적 있으며, 리용핑 사후 麥田出版에서 그의 초기작을 모아 李永平作品集7 《婆羅洲之子與拉子婦》(2018.8)를 재출판했다.

14) 《朱鶴書》를 중심으로 리용핑의 작품 세계를 평가한 연구자로는 劉雯慧와 林佩吟이 있는데, 이들의 관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에게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식민 공모자로 동일시된 원주민과 화인

《주링의 모험》은 작중화자이자 주인공인 12세의 ‘주링’이 타이베이 중산당(中山堂)에 모인 청중들을 향해, 세계에서 가장 원시적인 밀림이 있는 보르네오 섬 칼리만탄으로 홀로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작중 독자의 연령대와 성별이 특정되는 청중에 관해서는 결론에서 정리해 보기로 하고, 먼저 이러한 액자식 구조를 거쳐서 주링의 사라와 주 칼리만탄 모험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권-제2권은 주링이 정글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지에 관한 것이고, 제3권은 사라와의 식민 역사가 시작되는 ‘제임스 브룩(James Brooke, 1803-1868)’ 시절에 관한 내용, 제4권-제5권은 주링이 유린당한 원주민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신물(神物)을 우여곡절 끝에 얻게 되는 과정에 관한 것이며, 제6권은 ‘주링’이 여성 영웅으로 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제7권에서는 영웅이 된 ‘주링’이 보르네오 섬을 떠돌고 있는 식민지배자이자 늙은 백인 유령인 ‘바바 아오시(峇爸澳西; 할아버지 아오시)’를 처단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에는 다시 상황 액자를 통해 중산당으로 돌아와 모험이 끝났음을 보고하는 형태로 전체 작품이 마무리된다.¹⁵⁾ 어린 소녀가 등장하는 판타지 소설답게 주링이 무대 인사를 마치고 정신을 차리자 보르네오의 어느 숲에서 눈을 뜨게 된다. 보르네오 섬 북서부를 관통하는 담갈색의 카푸아스강(Kapuas River)을 살펴본 주링은 홀로 울고 있던 11세의 이반족 소녀 이만(伊曼)을 알게 되면서 사라와 일대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왜 어린 소녀가

15) 스토리의 도입 역할을 하는 바깥 이야기를 가진 경우 ‘상황 액자’라고 부르며, 내부 이야기 앞과 뒤를 바깥 이야기가 둘러싸고 있는 경우 ‘닫힌 액자구조’라고 한다.(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한국학술정보(주), 2009), 233-238쪽 참고.)

홀로 강가를 떠돌며 울고 있는지 사연을 듣게 된다.¹⁶⁾

언젠가부터 부족 마을에 영국 여왕의 어용 변호사 겸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법 고문인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바바 아오시’가 들락거리더니, 사랑이 나오는 마술을 보여주며 원주민 아이들을 홀려서 성적으로 유린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성경에 나오는 에덴동산 같은 인간의 천당 오스트레일리아로 갈 수 있다는 등, 여자아이가 9살이면 성인이라고 《코란(Koran)》에 나와 있다는 등 거짓 정보를 퍼트렸다. 이만은 9살이 되는 생일날에 아오시에게 목쓸 짓을 당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은, 백인 식민지배자가 ‘법률’ 지식으로 상징되는 근대화를 내세워 보르네오에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피지배자는 문명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순진하다 못해 어리숙하며, 그래서 피지배자가 문명화라는 당의정을 입힌 폭력적 근대화에 잠식·세뇌당하는 것을 어린 소녀들이 유린당하는 방식으로 상징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주민 또한 ‘식민지배자의 공모자’이기도 했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초기작에서 고민하던 ‘화인과 원주민’의 관계는 지워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만의 어머니는 ‘여자가 되면 인간의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서 이만을 단장시켜 직접 아오시에게 바쳤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 따르는 백인 변호사에게 한 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던 부족장과 장로들은 사건이 발생한 뒤, 어린 요물인 이만이 인자한 백인 할아버지를 피어 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죄명으로 부족의 롱하우스(longhouse: 가족 단위로 50-100명이 단체로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전통 가옥)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쫓겨난 이만은 정처 없이 떠돌다가 ‘잘 들어주는 소녀’ 주링을 알게 된 후에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상세히 하소연할 수 있었던 것이다.¹⁷⁾ 문명이 내세우는 장밋빛 미래에 현

16) 장소 이동에 대한 개연성 있는 설명을 생략한 이러한 패턴은 《해동청》과 《주링의 신선 나라 유람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張錦忠, <在那陌生的城市: 漫遊李永平的鬼域仙境>, 《中外文學》 第30卷第10期(2002.3) 참고.

17) 及川 茜, <紅色的領路鳥: 論李永平的繆斯‘朱鶴’>, 高嘉謙 編, 《見山又是山: 李永平研究》, 251쪽 참고. 及川茜는 리용평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링’의 역할과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면서 《진눈깨비 부슬부슬 내리고》부터 ‘주링’ 캐릭터가 작중 화자로부터 ‘경청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실제로 《주링의 모험》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과 그들의 이력 및 사건의 장소들은 대부분 《진눈깨비 부슬부슬 내리고》,

혹되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배자와 공모한 토착민들의 형상은 '아오시'의 총복인 '아리(阿里)'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키가 크고 깡마른 아리는 흰 장삼에 검은 사롱을 두른 자바인(Javanese)처럼 생겼는데, 용수철처럼 빠른 걸음으로 소녀들을 낚아채서 '아오시'에게 바치는 일종의 흑마법사이다.

그렇다면 타이완 출신인 '주링'이 어째서 백인 식민지배자와 보르네오 토착민 사이의 공모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이만의 사연을 들으면서 주링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1937년 중일전쟁을 겪고 1949년 이후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건너온 주링의 아버지가 타이완인을 향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우리 군이 죽기 살기로 8년간 일본군과 싸우는 동안 당신 타이완인들은, 화하의 후에 염황의 자손들은 이 섬에 숨어서 일본 제국에 순종했지. 쫓쫓, 50년 동안이나."¹⁸⁾ 어느 날 갑자기 보르네오에 등장한 주링은 스토리 전개상 이들 사이에 들어갈 여지가 없지만, 보르네오의 식민 역사가 타이완의 식민 역사와 포개어진다는 점에서 식민 공모자로서의 토착민의 행동을 목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리용핑의 식민 공모자에 대한 비판은, 이만과 헤어지게 된 주링이 정글을 헤매다 섬 곳곳에서 70여 명의 원주민 소녀들을 '비취 계곡(翡翠谷)'으로 유인한 아오시의 계략에 빠져 험한 일을 당할 뻔할 때, 주링을 구해 준 백인 라자 '제임스 브룩'을 원주민들이 낚을 잃고 맹신하는 대목에서 절정에 이른다.

롱하우스에서의 전도회가 이미 절정에 이르렀다. 강단 위의 제임스 목사는 강에서 막 나온 것처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축축해진 붉은 머리칼을 넓은 어깨 위에 풀어헤친 모습이 미친 듯 발정난 한 마리의 수사자 같았다. 강당을 가득 채운 촛불에 비쳐 그의 새빨간 두 눈이 보였는데, 핏발 가득한 두 눈이 마치 타오르는 불을 내뿜으려 하는 것 같았다. 문신을 한 얼굴을 추켜들고 땅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쪽 앉아서 새까맣게 강단 아래를 채운 이반의 전사들은 갑

《대하의 끝에서(상·하)》와 이어져 있다.

18) “咱國軍出生入死打了八年抗日戰爭，而你們這幫台灣郎，華夏後裔炎黃子孫喔，躲在這座島上做日本帝國的順民，嘖嘖，做了五十年。”(《朱鶴書》，103쪽.) 外省人 출신 아버지와 內省人 출신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타이완 구성원 내부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부수적인 이야기로서 간헐적으로 등장할 뿐 스토리의 중반부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자기 허리를 꼴꼴이 하고 고개를 위로 쳐들더니 하늘을 향해 일제히 외쳤다. “전 능하신 주여!”¹⁹⁾

주링은 이 장면을 보면서, 타이베이에 새로 생긴 교회에서 서양인 목사가 전도회를 할 때 완고한 자기 아버지마저 인용문 속의 원주민처럼 낮이 나간 듯 눈물을 흘리며 동조했던 것을 떠올린다. 《주링의 모험》에서 제임스 브룩은 ‘아오시’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되어 보르네오를 떠돌고 있으며, 주링을 위협에서 구한 뒤 시간 이동을 하여 자신이 통치하던 시절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목격하게 된 주링의 눈을 통해, ‘영웅’처럼 전해오는 제임스 브룩의 실체와 피통치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브룩은 영국 동인도회사 소속 군인으로 1838년 사라와 쿠칭에 왔다가 일대 해적으로 골머리를 앓던 브루나이 술탄인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2세(Omar Ali Saifuddien II)를 도와준 공로로, 1842년부터 3대에 걸쳐 사라와 지역을 통치한 실제 인물이다. 영국의 관습이나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본토의 문화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토착민을 다스렸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호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2대 통치자인 찰스 브룩 시절을 예로 들면, 백인 라자는 토착 전통을 보존해 준다는 명분으로 원주민들 간의 ‘머리 사냥’을 방관했으며, 이것을 영국식 통치를 수용하는 자를 회유하고 반항하는 자를 제압하는데 활용했다.²⁰⁾ 그런 점에서 《주링의 모험》에서는 제임스 브룩을 통해 사라와 박물관을 기획한 백인들의 의도와 신화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했음을 알 수 있다.

19) “長屋證道會已經進行到高潮點。講壇上的吉姆牧師，滿身汗水淋漓，好像剛在河裡泡過澡。一頭紅髮濕漉漉，披散在他那寬闊的肩膀上，宛如一匹發情狂嘯的公獅。滿堂燭火閃照下，只見他兩眼通紅，布滿血絲，彷彿要噴出兩蓬怒火來。台下那群黑鴉鴉聳著刺青頭顱，盤足排排坐在地板上的伊班戰士，颯地，挺起腰桿昂起脖子，張開喉嚨朝天齊聲吶喊：「阿克巴爾，都漢！無所不能的主！」”(《朱鶴書》，342-343쪽. ‘阿克巴爾，都漢’은 말레이어인데 ‘都漢’은 ‘주인님’이라는 뜻을 가진 말레이어 ‘tuan’을 중국어로 표기한 것이다.)

20) Derek Freeman, “Pringle, 《Rahahs and Rebels: The Ibans of Sarawak Under Brooke Rule 1841-1941》(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0) Book Review”, *Journal of Asian Studies* (May.1, 1971), 734-735쪽 참고, 김용진, <말레이시아 사라와에서 종족범주화와 문화재현에 관한 연구: 박물관과 문화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11-21쪽 참고.

하지만 타이완 학자들의 지적대로 리용핑은 보르네오의 역사를 간략화함으로써 화인과 원주민의 관계를 외면했다.²¹⁾ 백인-원주민 사이에는 오랫동안 화인의 역사가 한데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링의 모험》에서는 신통한 플룻 없이 주링의 입을 통해 ‘란팡(蘭芳)공화국’과 ‘신당(新唐, Sintang)’이 배경처럼 설명되고, 각 인종의 혈통이 다 섞인 듯한 혼혈 미남 ‘광(鄺, Kuang)’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선에서 그친다.²²⁾

인도를 비롯한 14-15세기의 동남아시아 지역은 느슨한 봉건 연맹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 체제 또는 근대적 국민국가 체제와 달리 무역 시장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으며, 다양한 민족 집단이 공존하면서도 경쟁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중적인 인식과 달리 타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었다. 해당 지역의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무역 활동을 허가받고 그 이익을 일정 부분 관세로 납부하기만 하면, 아무런 군사적·경제적 통제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유럽 열강들이 자유무역을 통해 제국주의로 쉽게 나아갈 수 있었다.²³⁾

또한 이반족을 비롯한 보르네오 섬의 원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부족 체제였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진출한 뒤 편의상 다야크(Dayak)로 분류되어 총칭되지만, 내부적으로 풍습과 언어·문화가 다른 수십 개의 부족으로 동질하지 않으

21) 高嘉謙, <性, 啓蒙與歷史責務: 李永平《大河盡頭》的創傷和書寫>, 《見山又是山: 李永平研究》, 202-203쪽, <書寫婆羅洲vs. 砂華文學: 田思電台訪談摘錄>, 《星洲日報》(2008.6.29.), https://www.sinchew.com.my/content/content_602272.html (최종검색일 2020.1.23.) 참고.

22) ‘란팡공화국’은 客家인 羅芳伯(1738-1795)이 1777년 보르네오 칼리만탄 바랏(Barat) 주의 폰티아낙(Pontianak)에 정착하여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다소 독립적인 형태를 띠었던 중국인 이민자 사회를 가리킨다. 1884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자치권을 넘기게 된다. 이 시기 백인-화인-원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Mary Somers Heidhues, *Goldiggers, Farmers, and Traders in the “Chinese Districts” of West Kalimantan, Indonesia*(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47-125쪽 참고. ‘광’은 작중 제임스 브룩의 하인으로 등장하며, ‘주링’이 역사적 시간에서 벗어나 다시 보르네오 현실로 돌아가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23) 하네다 마사시 저, 이수열·구지영 옮김, 《동인도회사와 아시아의 바다》(선인, 2012), 30-99쪽 참고. 하네다의 경우, 타 종교에 대한 경계와 불신은 오랜 기독교 분쟁을 겪은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며, 서로가 같은 부족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상호 충돌과 연합은 당연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이반족에게 내방자(visitor)는 수호신인 쟡가랑 부롱(辛格朗 布龍, Sengalang Burong)이 보내준 사람으로서 전통적으로 환대를 받는 존재였다.²⁴⁾ 그러므로 원주민들에게는 종족과 문화가 다른 유럽인이나 화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애초부터 마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부족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유럽식 근대교육을 받거나 유럽인이 부여하는 제한된 행정권의 일부를 담당한다고 해서 '식민지배자와의 공모'라고 단순화해도 괜찮을 것인가?²⁵⁾ 異族 앞에서 원주민으로서의 종족 동질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異族과의 만남을 투쟁·승패의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공모자'라고 설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시각을 달리하면,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이라는 것이 각각의 상대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단일하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은 오히려 원주민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왕조 체제와 같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경험한 화인의 경우, 동남아시아 해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광산업·상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네덜란드, 영국과 같은 異族의 진입이 화인의 '이해(利害)'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민감했다. 초창기에는 남성들만의 이민이었기 때문에 원주민을 비롯한 토착민 여성들과 통혼을 감수했으나, 어느 정도 화인의 세력이 형성되면서 그들과 자신을 구분 짓고 거리를 두는 방식을 선택했다.²⁶⁾ 이러한 구분 짓기의 성격은 《주링의 모험》에서 보르네오 특유의 문신 문화를

24) "Iban Cultural Heritage, History and Traditions", <https://gnmawar.wordpress.com> (검색일: 2020.1.23.)

25) 유럽 및 아시아 국가와 다른 정치 체제를 영위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백인 이주자에 대한 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동족 배신'이나 '식민 공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김윤경, <아스텍 제국의 몰락 원인: 전염병인가? 신화인가?>, 《서양사연구》 제42집, 2010, 59-65쪽 참고. 김윤경은 스페인 항해자들이 진출하기 이전의 아메리카의 통치 체제에서 몰락의 원인을 두고 있는 입장이다.) 내방자에게 보인 우호적인 문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26) 이후 중국인들의 기록에서 동남아시아의 원주민은 '토인(土人)'으로 통칭되며, 중국 문명에 비해 야만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화인의 이주를 '동남아 개척'으로 평가했던 기록물도 확인할 수 있다.(박경석, <동남아를 보는 중국의 '식민주의적' 시각>, 《동남아 여행 글쓰기와 포스트식민주의 비평》(심산, 2011), 135-166쪽 참고.)

‘낙인’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주링은 험난한 여정에서 많은 원주민 소녀들과 인연을 맺게 된다. 보르네오에서 주링이 마주친 9-17세 소녀들은 모두 팔뚝에 ‘히비스커스(말레이시아의 국화로 새빨간 꽃이 특징)’ 문신을 하고 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꽃잎을 하나씩 새겨 넣게 된다.²⁷⁾ 보르네오 전통에서 문신은 용맹을 상징하기도 하고 악령으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지켜주는 정령·조상의 부적을 상징하기도 하며, 문양은 다를 수 있지만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며, 모든 원주민이 문신을 하는 것도 아니다. 반면 《주링의 모험》에서는 “초야를 치른 소녀의 이마에는 붉은 점이 찍혀 있다”²⁸⁾는 식으로 마주치는 소녀들의 순결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문신=낙인’으로 상징하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폴리네시아 문신은 기혼 여성을 표시하는 인도식의 이마 중앙의 주사(朱砂) 형태가 아니라, 사물의 기본 형태를 패턴화한 기하학 무늬로 이뤄져 있다. 유럽인들이 처음에 온몸을 감싸고 있는 이들의 문신을 ‘아름답다’고 느낀 것도 화려한 기하학 무늬 때문이었다.³⁰⁾ 원주민들의 몸에 완성형으로 있는 문신은 《주링의 모험》에서 보여주듯, “시집가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징표가 아니다.³¹⁾

요컨대 ‘야만→문명화’라는 틀로 종족·문화적 ‘차이’를 위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근대 유럽적인 관점으로부터, 리움핑이 창작을 통해 어떤 인식의 전환과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작품이 보여주

27) 서구인들이 문신을 한 폴리네시아인을 최초로 마주쳤을 때는 ‘아름다운 사람’이라 기록했다고 한다. 문신에 대한 편견은 이후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달라졌다.(스티브 길버트 저, 이순호 옮김, 《문신, 금지된 패션의 역사》(르네상스, 2004), 27-40쪽, 53-64쪽, 305-322쪽 참고.)

28) 《朱鶴書》, 420쪽.

29) 동아시아에서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 역사적 기원에 관해서는 조현설, <문신 금기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단상>, 《문신, 금지된 패션의 역사》, 344-353쪽 참고.

30) 기하학 무늬가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사물)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외형을 뚫고 들어가 그 외형을 만들어 내는 사물의 본질을 도형이나 선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오종우, 《예술적 상상력: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힘》(여크로스, 2018), 99-106쪽 참고.) 이런 점에서 폴리네시아 문화가 유럽이나 아시아보다 뒤떨어진다는 편견을 다시 생각해보는 필요가 있다.

31) 《朱鶴書》, 613쪽.

는 상술한 한계들은 화인과 원주민을 동일시한 후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리용평이 백인 식민지배자, 피지배자 화인, 또 다른 피지배자 원주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고찰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역사관이나 세계관 그리고 정체성을 바라보는 관점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전개되는 핵심 플롯의 개연성 자체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제임스 브룩은 주령에게 이후 ‘아오시’를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크리스(克利斯)’를 하사한다. 이 칼은 제임스 브룩이 해적을 물리친 공로로 술탄으로부터 받은 말레이식 검인데, 99명의 반란자를 처형한 이력이 있다. 사이비 교주의 모습을 보인 제임스 브룩의 선물이 악의 근원을 무찌르는 무기가 된다는 설정은 검이 가지는 자격의 당위성을 약화시키며, 안이하게 처리된 공모자로서의 원주민은 플롯 구조상에서 마지막까지 문제점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점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3. ‘성장’과 ‘재해석’이 없는 소녀 영웅 이야기

리용평의 ‘보르네오 3부곡’ 두 번째 시리즈인 《대하의 끝에서(상·하)》에는 평론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장면이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소년 ‘융(永)’이 카푸아스 강을 거슬러 원주민들의 성산(聖山)인 바투 티반(峇都帝坂, Batu Tiban)을 찾아가는 소년의 성장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소년 ‘융’은 이반족 소녀 ‘이만’이 늙은 백인 변호사인 ‘아오시’에게 강간당하는 상황을 엿듣게 된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클럽이었던 ‘쇼엔(松園)여관’에서는 일본도를 만진 소년 ‘융’이 일본군의 악령에 쏜 듯 여관 주인을 강간할 뻔하는 장면이 등장한다.³²⁾

32) 《大河盡頭(上)》, 272쪽, 《大河盡頭(下)》, 264-274쪽. 타이완 화련(花蓮)시에는 1943년에 지어진 일본군 사무소인 ‘松園別館’이 남아있는데, 리용평의 작품에서 ‘쇼엔 여관’으로 형상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松園別館은 1945년 이후 미군 휴양지로 사용되었다.

《진눈개비 부슬부슬 내리고》와 《대하의 끝에서》에서 작중 화자 또는 주인공이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보르네오에서 화인이 방관자로서 식민 지배에 간접적으로 식민지배자와 공모했다는 원죄의식이다. 그런데 소년 ‘용’을 통해 원죄를 고발하는 도중에 여주인을 강간할 뻔했으나, 리용평이 여성들의 수난을 다루는 방식의 한계가 표출된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³³⁾ 이 장면이 특정 시기 특정 민족의 만행을 고발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마음속의 마귀’를 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추악함을 보편적 차원에서 형상화했다고 보기도 한다.³⁴⁾

특정 장면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엇갈리지만, 리용평이 그간의 작품에서 어린 소녀가 유린당하는 것을 목격한 성인 남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류하거나 도와주는 것으로 그리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리용평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고 있는 인물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성에게는 남성의 욕망을 차단할 자격이 없음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³⁵⁾ 스스로의 욕망에 마음의 눈까지 멀게 되는 성인과 달리 남의 사연을 잘 경청할 줄 아는 소녀, 비록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리지만 정신적으로는 성숙한 소녀 주링은 ‘보르네오 3부곡’의 주인공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리용평은 ‘소녀의 모험’을 통해 앞의 두 시리즈와 다른 속죄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다.³⁶⁾ 그래서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구의 문학작품은 물론, 남성성과 여성성뿐 아니라 어른과 아이, 힘과 나약함, 삶과 무지 사이의 작은

33) 黃錦樹, <石頭與女鬼: 論《大河盡頭》中的象徵交換與死亡>, 《臺灣文學研究學報》第14期(2012.4) 참고. 황진수의 이 논문은 리용평의 세계관과 여러 작품에서 반복하는 패턴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평가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34) 及川 茜, <李永平《大河盡頭》의寓意>, 《野草》第94號(2014.8) 참고.

35) 黃錦樹, <漫遊者, 象徵契約與卑賤物: 論李永平的《海東春秋》>, 《中外文學》30卷10期(2002.3), 35쪽, 及川 茜의 <紅色的領路鳥: 論李永平的繆斯朱鶴>, 앞의 책, 256쪽, 高嘉謙의 앞의 글, 215-219쪽 참고.

36) 리용평이 自序에서 소녀 ‘주링’을 주인공 전면에 내세운 이유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으며(《朱鶴書》, 13-16쪽), 스토리 중간에는 보르네오 원주민 전사 ‘비하이(畢嘩)’가 생전에는 황인 소년 ‘용’에게 보르네오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죽어서 영혼이 된 지금은) 유명선에서 알게 된 소녀 ‘주링’에게 임무를 부탁한다는 장면(《朱鶴書》, 494-497쪽)이 등장한다.

빈틈 속에서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소녀들을 통해 기존의 정체성과 다른 그 무엇을 성공적으로 탐색한 바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³⁷⁾을 대거 참고했다.³⁸⁾ 그런 점에서 주링을 비롯한 소녀들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으며 이것이 어떤 가치를 상징하고 있는지, 모험의 과정에서 서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이것이 악을 물리치는 영웅적 역할과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포커스를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링이 룡하우스에서 쫓겨나 방황하고 있던 이만을 만난 뒤, 둘은 ㄱ냐족(肯雅族, Kenyah: 칼리만탄 동부에 거주하는 원주민) 전설에 전해오는 '덩유라루(登由 拉鹿)'라고 하는 소아국(小兒國)을 찾아가기로 약속했다. 소아국은 보르네오 원주민들의 수호신인 쟁가랑 부릉의 아내가 수호하고 있는 성스러운 땅으로, 출생 전에 사망한 아기와 요절한 아이들의 안식처이다.

초반부터 이만과 헤어지게 된 주링은 제임스 브룩의 도움으로 한 차례 위기를 면한 뒤 '크리스'를 들고 다시 현실의 보르네오로 돌아왔는데, 이때 서구식 근대교육을 받은 상가우(桑高, Sanggau)여자중학교의 교복을 입고 있는 13세의 마당(馬當)족 소녀 '룽무(龍木)'를 알게 된다. 주링은 이 룽무를 통해, 강의 폭과 유속이 변화무쌍한 카푸아스 강에서 브룩의 하인 '광'이 주고 간 '정글 야생마(叢林野馬)'라는 이름의 말레이식 삼판을, 노를 저어 능숙하게 움직이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룽무는 일찍부터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조상을 가진 후에 답게 용감하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제1권-제3권까지는 작가 리용평의 목소리가 '뮤즈'처럼 개입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지만,³⁹⁾ 주링이 브룩에게

37) 수전 J. 네피어 저, 임경희·김진용 옮김, 《아니메: 인문학으로 읽는 저패니메이션('아리 카'에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까지》(루비박스, 2005), 197-198쪽 참고.

38) 《朱鶴書》, 12-16쪽, 리용평이 참고한 서구 작품 속의 소녀 주인공으로는 엘리스(《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도로시(《오즈의 마법사》), 빨간 모자(동화 《빨간 모자》)가 있다.

39) '보르네오 3부곡' 중 《대하의 끝에서》에는 '주링'이 등장하지 않지만, '길 안내하는 새(領路鳥)'나 무대 뒤 목소리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高嘉謙, <性, 啓蒙與歷史責務: 李永平《大河盡頭》의創傷和書寫>, 앞의 책, 196쪽.) 《주링의 모험》에서는 거꾸로 작가 리용평이 미지의 정글을 탐험하는 어린 소녀를 걱정하는 목소리 형태로 종종 등장하는데, 소녀의 모험을 서술하는 데 방해가 될 뿐 '굳이 이런 장면을 넣었어야 했는지'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기 쉽지 않다.

이만과 '비취 계곡'에서 헤어진 원주민 소녀들을 찾으러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뒤부터, 이런 목소리는 사라지고 주링이 주인공이자 작중화자로 스토리를 온전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장악하게 된다.

룽무는 다야크 전설 속이나 나오는 인물처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2살 많은 언니 '비다다리(比達達麗)'의 행방을 찾아서 정글을 헤매고 있었다. 친·외가의 조상들 모두 유럽인과 교류한 적 있지만, 룽무가 살던 상가우 지역에서도 '아오시'는 '산타 할아버지'처럼 인심 좋은 백인 할아버지로 인식되고 있었다. 15세가 되던 해 어느 날 밤에 비다다리는 순결한 소녀들에게만 들리는 이상한 '복소리'에 이끌려 실종됐다. 보르네오 내륙의 밀림을 통치하는 신인 '타리 사령(峇里沙冷)'에게는 '이무이단(伊姆伊坦)'이라는 흑마술사가 있는데, 2명의 영혼을 가진 임산부의 배를 갈라 피를 마시거나 순결한 소녀를 죽인 뒤 소녀의 두개골로 몸체를 만들고 팔뚝의 피부를 가죽 삼아 '다양 전당(妣央·珍璫, 소녀복)'을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복소리를 통해 (복의 수명이 12개월이므로) 1년에 한 번씩 히비스커스가 만개하는 시기가 되면 순결한 소녀들을 유인한다고 한다.

자초지종을 듣고 서로 길동무가 된 주링과 룽무는 도중에 70여 명의 소녀들과 함께 '신 가나안(new Canaan)'을 찾아가고 있는 '아오시' 무리를 마주쳐 홀릴 뻔한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도중에 언니 비다다리가 '다양 전당'에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기소침해진 룽무마저 결국 실종됐다. 그런 룽무를 찾아 헤매던 주링은 카푸아스 강의 원류이자 원주민들이 죽어서 가는 영혼의 안식처 '바투 티반'을 찾아가는 다야크 가족의 영혼이 타고 있는 유령선에 승선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자유보르네오' 성전(聖戰)의 조직원인 '비하이(畢噉)'를 만나, 소년 '융'(<<대하의 끝에서>>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 반복)이 했던 임무를 이어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비다다리와 룽무가 희생되어 '사우다리 전당(薩烏達麗·珍璫, 자매복)'이 된 것을 손에 넣고 홀로 '소아국'을 찾아가기로 결심하는 이야기가 제4권-제5권에 걸쳐 전개된다. <<주링의 모험>>에서 룽무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제7권에서 주링이 아오시와 싸울 때 '크리스'와

함께 중요한 무기가 되는 '사우다리 전당(자매복)' 때문이다. '다양 전당(소녀복)' 중에서도 순수한 두 처녀의 영혼이 깃든 '사우다리 전당(자매복)'은 사악한 마법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신성(神聖)을 가지고 있다.

룽무든 비취 계곡에서 만난 7부족을 상징하는 원주민 소녀들이든, 룽무처럼 중간에 죽거나 '아오시'의 강력한 마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주링이 '영웅'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통상 '영웅 스토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성장'이다. '성장'은 어떤 인물이 어떻게 영웅으로서 힘을 얻게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자격을 가지게 되는가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물론 주링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성인 남녀의 도움 없이 때론 위협적이고 때론 외로운 미스터리한 정글을 서로 다독이고 위로해가며 헤쳐나가는 어린 소녀들의 우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남에게 말하기 쉽지 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사연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주링은, 영혼인 '비하이'와도 소통하며 《진눈깨비 부슬부슬 내리고》에서의 '뮤즈'이자 '영매'로서의 모습도 보여준다. 하지만 소녀들의 독립성과 우정은 모험을 통한 성장 과정에서 주요한 줄기를 이루지 못한다. 주링이 원주민 소녀들의 신체를 마치 성인 남성이 훔듯이 묘사하는 장면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말이다.⁴⁰⁾

타이베이 초등학교의 여학생 교복인 노란색 상의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던 나는, 치마를 무릎까지 쓸어 올리고 나의 그 하얗고 부드러운 처녀 같은 다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윽고 시커먼 살무사 가죽으로 칭칭 감은 18cm나 되는 '요도 무라마사'의 칼자루를 잡고서 사타구니 사이에 칼을 밀어 넣고 두 허벅지 다리로 고정했다. 이어서 내가 두 손으로 칼을 단단히 쥐고 눈을 감자, 몽롱해진 듯 홀린 듯 우연하게도 보르네오에서 유실된 일본 명검이 나 주링의 손에서 이상할 정도로 친밀하게 느껴졌다.⁴¹⁾

40) 劉雯慧, <修復與超越: 論李永平《朱鶴書》的創傷原址>, 《中國文學研究》 第44期 (2017.7), 251쪽. 하지만 劉雯慧는 《朱鶴書》의 모험 과정을 '순결한 처녀가 일으킨 여성혁명' 이야기로 분석하면서, 리용핑이 새로운 영웅의 조건으로 '순결한 처녀'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없다. 본고는 리용핑의 처녀로 상징되는 '순수성'에의 집착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41) “我拉起我身上那件黃衣黑裙台北小學女生制服, 將裙襠捋到膝蓋上, 赤裸裸露出我那雙處女的白暫細嫩的腿來, 隨即我反手舉起村正妖刀, 將它那根十八公分長, 黑黝黝地用蝮蛇皮纏繞包裹

제6권에서 주링은 양쪽 허리춤에 각각 ‘자매복’과 ‘크리스’를 단단히 묶고, 유령선에서 만난 일행들과 헤어져 홀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간의 여정에서 1년이 흘러 이제 주링은 13세가 되었다. 주링이 하선하여 처음 당도한 곳은 ‘쇼엔(松園)’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 일본식 별장이었다. 호기심에 별장 안으로 굽이굽이 들어가다가 예전에 일본군들이 사용한 듯한 검도장까지 가게 되었는데, 생전에 ‘말레이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일본 육군 장군 야마시타 도모유키(山下奉文, 1885-1946, 전범재판에서 사형된 후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실존 인물)가 쓴 편액 ‘니혼마쓰 정원(二本松芳苑)’ 아래에 걸려 있는 일본도를 마주하게 되었다. 칼 위에는 ‘요도 무라마사(妖刀村正)’⁴²⁾라고 새겨져 있었다. 상기 인용문은 주링이 일본도를 사타구니 사이에 끼우고 악령에 홀린 듯 정신을 놓는 장면이다. 다행히 유령선에서 함께 하선한 개 ‘히땀(希旦, hitam: 까맣다는 뜻의 말레이어)’⁴³⁾이 미친 듯이 짙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지만, 머리 잘린 일본군들이 검도장으로 몰려드는 듯 수백 명의 군화발 소리가 울리며 두 번째 위기가 닥쳤다.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기모노를 입고 샤미센을 들고 ‘쇼엔’ 별장을 떠돌던 ‘세쓰코 부인(節子媽媽桑)’이 “주링 상, 도망쳐!”라고 소리쳐서 머리 잘린 일본군 유령들에게서 무사히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날 주링은 ‘초경’을 시작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

리용핑의 전작에서 ‘주링’이 여러 인물 중 하나로 등장할 때에도, 귀걸이를 뚫는 데 사용하는 총을 통해서 ‘강간’을 상징하는 듯한 장면이 등장한 적 있다. 이때는 소녀들이 유린당하는 피해자로 등장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사

の刀柄，直直挿入我胯下，夾在兩腿之間。接著我便伸出雙手攔住刀身，闔起眼來，開始放縱地，忘我地狎暱這一把因緣湊巧遺失在婆羅洲，落入我朱鶴手中的日本名刀。”(《朱鶴書》，578쪽.)

42) ‘村正’은 일본 무로마치(室町) 시대 때의 유명한 도공의 이름이다. 질삭력이 일본 제일인 검을 만들었는데, 이 칼을 소유하게 되면 죽거나 칼에 베어 있는 살기에 홀려 닥치는 대로 살인을 하게 된다고 한다. 도쿠가와(德川) 가문이 4대에 걸쳐 이 칼에 죽거나 다쳤다고 전설처럼 전해오는데, 일본 사무라이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한다.(모로 미야 저, 김경아 옮김, 《전설 일본: 일본문화의 근원》(일빛, 2010), 151-157쪽 참고.)

43) 이 새까만 개는 《진눈깨비 부슬부슬 내리고》에서도 등장한 적 있는데, 리용핑의 분신인 듯한 작중 화자가 어린 시절에 키웠던 ‘샤오우(小烏)의 화신이다. 샤오우는 늙고 병이 들자 작중 화자와 형제들이 던진 돌팔매질에 죽었다. ‘약자’를 돌보고 보호하기보다 무시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악마적 속성’을 자신의 내부에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할 때 등장했다.

회적 풍토가 변하지 않는 한 언젠가 닥칠지도 모르는 소녀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운명으로 읽힐 수 있었다.⁴⁴⁾ 만약 인용문의 장면을 주령이 '강간'의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한다면, 악과 대결하는 자격은 '순결한 처녀'에게만 있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유린당한 소녀들에게 남성/가해자로서 죄의식은 느끼지만, 수난자들에게는 더 이상 상황을 바꿀 힘도 동기도 없으므로, 악의 근원을 제거할 자격은 오직 (이성과 육체적으로 교접하지 않은) '처녀'에게만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아니겠는가.

강간이 아니라 무수한 신화에서 남성 영웅이 용과 싸우는 통과의례를 거치듯 여성 영웅의 '성인식'에 가깝다고 해석한다면,⁴⁵⁾ 여성에게 가장 큰 난관으로서 '강간'을 설정했다는 말이고 남다른 소녀가 되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극복의 과정'이 중요하게 되는데, 주령이 '크리스'를 사용한 것도 '자매복'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그저 첫 번째 위기에서 온 좋게 제임스 브룩의 도움을 받았듯, 갑자기 등장한 '히땀'과 '세즈코 부인'의 도움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둘의 존재를 주령과 '상처받은 소수자'와의 연대로 보기에, 주령과 연대하는 과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검은 개 '히땀'은 뜬금없이 유령선에서 등장했으며 주령이 《진눈깨비 부슬부슬 내리고》의 사연을 회상하며 '샤오우'이겠거니 한 것이 전부이다. '세즈코 부인'은 본고 3장 시작 부분에서 설명한 《대하의 끝에서》에 등장한 바로 그 여관 주인이다. 이 장면에서 갑자기 등장했으며, 리용평이 반복되는 캐릭터를 사용하다보니 '세즈코 부인'의 사연에 관한 설명도 간략화되어 있다. 샤오우는 '소아국'까지 따라가지만 '세즈코 부인'은 이 장면에서만 등장했다가 더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강간이라는 통과례는 "조심해!", "도망쳐!"라는 일깨움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지 않은가? 최소한 이 통과례를 통해 원래는 소녀들을 유인하는 용도였던 소녀복이 어떻게 업그레이드된 '자매복'이 되면서 악을 물리치는 神物이 되는지 '크리스'와 함께 그 사용법을 터득하게 되는 과정을

44) 及川 茜, <紅色的領路鳥: 論李永平的繆斯朱鶴>, 앞의 책, 245쪽.

45) 劉雯慧, 앞의 글, 251쪽. 劉雯慧은 이 장면을 주령이 아오시를 처단하기 전에 치르는 '통과의례'로 본다. 하지만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보여줬더라면, 상기 인용문이 ‘성인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굳이 ‘초경’은 왜 하는가? 앞으로 상대할 절대악인 ‘아오시’를 상대하기 위해서 어린 소녀이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인’의 징표라도 가져야 한다는 것인가? 애초부터 ‘주링’은 순진한 원주민 소녀들과 달리 타이완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추악한 사실도 알고 있는 성숙한 소녀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주링’은 소녀여야만 하지 ‘성인 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20대 중·후반기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여성들의 삶이란, 초저녁에 산발이 된 머리를 하고 통 넓은 바지를 입고서 쓰레기나 버리러 나오는 일상”을 반복할 뿐이기 때문에,⁴⁶⁾ 굳이 어른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주링의 모험》의 여성 영웅은 초경은 할 정도의 조숙한 소녀여야 하며 성적 유린은 당한 적 없어야 한다. 그리고 ‘주링’과 인연을 맺는 소녀들의 ‘성장’은 없다. 물론 꼬냐족 전설에 따라 산전수전을 겪은 여성(푸라평의 경우)이 ‘백로’로 환생하여 길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모험의 과정에서 출산하다 죽거나 “어찌해도 나는 깨닫해질 수 없어” 하고 수치심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⁴⁷⁾ 이와 대조적으로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겁쟁이 사자, 뇌가 없다고 생각하는 허수아비, 심장이 없어서 슬픈 양철나무꾼이 도로시와의 동행을 통해 자신 안의 ‘용기’, ‘지혜’, ‘따뜻한 마음’을 깨닫게 된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마녀 배달부 키키》에서는 키키가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면 비행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을 믿는 것이 진정한 성장 열쇠’임을 깨닫는 과정이 있다. 그러므로 여성이 쓴 이야기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의 시각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듯, 《주링의 모험》에서 소녀 주인공이 등장할 뿐 리용핑의 전작들과 무엇이 그렇게 달라졌는지 의심

46) “這個住在台北市郊萬芳社區的一棟半舊公寓大樓，今年已經四十歲，履歷只有一張十行紙，每天傍晚，頂著一顆雞窩頭，穿著一條邋邋休閑褲，跟隨一群歐巴桑出屋來倒垃圾的溫朱鴿？”（《朱鴿書》，28쪽.）리용핑은 중년 부인들의 삶을, ‘더 이상 어떤 변화를 생각할 수 없는’ 일례로 생각한다.

47) 비취계곡에서 만난 소녀 중 육지 다야크족 푸라평(蒲拉蓬)은 아오시에게 강간을 당해 아이까지 낳게 되었는데 출산 직후 사망했으며, 이슬람교를 믿는 마란뉘족(馬蘭諾) 이스민나(依思敏娜)는 강간당한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강물에 투신자살한다.（《朱鴿書》，608-646쪽, 686-694쪽.）

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전작들에서 단지 ‘혐의’로만 의심되던 부분들이 오히려 《주링의 모험》에서 대부분 명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⁴⁸⁾

어쨌든 ‘쇼엔’여관을 빠져나온 주링은 이제 보르네오 사람들 사이에서 ‘황인 마녀(黃皮膚小魔女)’라는 별명을 가진 ‘새로운 신화적 인물’이 된다. 사실 리용핑이 《주링의 모험》에서 ‘제임스 브룩’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은 오로지 ‘주링’을 통해 ‘새로운 신화’를 쓰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리용핑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창작과 동시에 영미문학도 종종 번역했는데, 그가 1997년에 번역한 그레이엄 헨콕(Graham Hancock)의 《신의 지문(Fingerprint of the Gods)》(台灣先知出版社)에는 ‘백인 신’ 신화가 등장한다.⁴⁹⁾

12-16세기 약 4세기 동안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아스텍’ 제국이 겨우 수백 명의 유럽인들이 도착한 지 2년 반 만에 멸망하게 된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백인 신’ 신화이다. 아스텍 제국의 원주민에게는 형과의 싸움에서 패해 떠나버린 동생 ‘케찰코아틀(Quetzalcoatl, 깃털 달린 뱀: 생명의 원천이자 지혜의 빛, 풍요의 신)’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한 전설이 전해오고 있었다. 이 신은 ‘하얀 얼굴에 붉은 수염’의 형상을 띠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때마침 멕시코를 찾아온 유럽인들이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신’으로 생각한 원주민들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스페인에게 협력하는 바람에, 거대한 아스텍 제국이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멸망했다는 것이다.

《신의 지문》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는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헨콕은 기본적으로 ‘문명이란 전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전파주의자’이다. 고도로 발전된 하나의 문명을 ‘전파’에만 의존하여 해석하는 것에 비판적인 페이지의 경우, ‘문명 전파론’의 기저에는 인류란 본래 선천적으로 우둔하며 창의력이 없는 존재라고 보는 시선이 깔려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집트·아스텍

48) 《朱鶴漫遊仙境》의 제1권은 총 2000부를 찍었는데 10년이 되어도 다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朱鶴書》, 19쪽.) 이 작품은 리용핑이 어린 소녀들이 강간당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바람에 ‘페도필리아’라고 의심받은 전적이 있다.

49) 그레이엄 헨콕 저, 이경덕 옮김, 《신의 지문(상)》(까치, 1996), 133-138쪽.

문명의 비밀을 풀어내갈 때도 증거에 근거한 과학적 추론보다 아주 오래 전에 고도로 발달했던 어떤 문명으로부터 '전수'받았다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러한 문명들이 보여주는 뛰어난 기술력도 하룻밤 사이에 근원도 없이 등장했다고 설명해버린다.⁵⁰⁾ 오늘날에는 헨콕의 저서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으며 합리적이지도 못한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리용핑이 번역할 무렵에는 별 비판 없이 유통되었고, 리용핑은 보르네오에서 제임스 브룩 시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바탕으로 '백인 신' 신화와 연결지어, 소녀 영웅을 통해 '새로운 신화'를 쓰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⁵¹⁾

보르네오 토착민들이 황인종인 주링을 '남다른 존재'로 알아본 것은, 양쪽 허리춤에 차고 있는 '크리스'와 '자매북' 때문이었다. 제임스 브룩이 떠나면서 원주민들에게 약속하기를, 다시 돌아올 때 먼저 '황인 마녀'를 보내 길을 막는 자를 없앨 텐데, '크리스' 검과 '두 소녀의 얼굴로 된 북'이 바로 그 징표라고 알려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정된 '새로운 신화쓰기'가 주링의 오랜 모험을 마무리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무엇을 생각해볼 수 있는지, 이야기의 대단원을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다.

'황인 마녀'라는 명성을 얻은 주링은 '소아국'을 향하는 도중에 헤어졌던 이만과 비취 계곡에서 알게 된 백인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푸난족(普南族, Punan) 소녀 아메이샤(阿美霞)와 극적으로 상봉했다. 하지만 이만은 소아국까지 4-5일만 걸으면 도착하는 거리에서 그만 죽고 만다. 한편 '아오시'로부터 극적으로 탈출한 아메이샤는 그간의 일을 주링에게 알려줬다. 아오시가 70여 명의 소녀들을 데리고 포도밭과 무화과는 없지만 쌀이 재배되고 각종 열대과일이 나는 '신 가나안'에 정착했다가 임신한 소녀를 내쫓고 저항하는 소녀의 칼에 오른쪽

50) 케니스 페이더 저, 박성우 옮김, 《사기, 신화 그리고 불가사의: 고고학에서 본 과학과 사이비 과학》(서경문화사, 2008), 341-347쪽.

51) 林嫻吟은 제임스 브룩 신화를 가져와서 주링을 새로운 신화의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본고의 17-18쪽에서 인용한 주링이 강간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리용핑이 주링으로 상징되는 '순수성'을 통해 상처로 얼룩진 보르네오의 역사를 위로하고자 했다고 평가한다.(<華語語系的多鄉書寫: 李永平作品中的'中國', 臺北與婆羅洲>, 《文藝爭鳴》6期(2016.6), 23쪽.) 하지만 본고는 보르네오의 역사적 상처가 '순수성'에 의해 치유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눈을 찢리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을 겪자, '소아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고 '덩유 라루'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아메이사는 이런 와중에 어떤 신비한 '황인 마녀'가 아오시의 행방을 물으며 '소아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 마녀가 '주령'임을 눈치채고 죽을 듯이 도망쳤다고 했다. 아메사의 이야기를 듣고 주령은 아오시와 결판을 내기로 결정한다.

나는 허리춤의 크리스를 뽑아서 화살처럼 앞으로 나아가 칼끝을 아오시의 심장에 겨누고,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기도했다. “란야 언니, 당신의 영혼이 내 곁으로 들어와 나의 수호천사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칼끝을 늙은 아오시의 약점인 오른쪽 가슴 일곱 번째 갈비뼈 아래를 정확하게 향하도록, 이 주령이 단칼에 그의 목숨을 끝장낼 수 있게 해주세요.” …… “이 칼은 불운했던 이만 대신이다.” … “이 칼은 이스민나 대신 복수하는 것이다!” … “이 칼은 착하고 귀여운 푸난족 소녀 아메이사가 나에게 부탁한 것이다!” … “괴가 철철 흐르는 이 칼은 푸라평과 태어나자마자 억울하게 엄마를 잃은 아이를 위한 것이다!” … “이 칼은 신 가나안 ‘제7천국’ 후궁인 72명의 보르네오 원주민 소녀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친애하는 바바, 그만 죽어버려!” … “이 칼은 나 주령 개인이 벌하는 것이다.” …… 이번에 아오시는 정말로 죽었다. … 이렇게 더이상 백마법사 윌리엄 아오시는 부활할 수 없게 됐다.⁵²⁾

드디어 '소아국'에 도착한 주령은 '아오시'보다 먼저 도착해서 아이들을 납치하려고 하는 '아리', 흰 장삼에 검은 사롱을 두르고 용수철처럼 빠른 걸음을 걷는 자바인 흑마법사를 '자매복'을 두드리 강가에 투신자살하게 만들었다. 뒤이어 도착한 아오시는, 얼굴에 살기를 띠며 남은 왼쪽 눈에서 하얀 뱀을 만들어 내 주령의 정신을 혼란시키며 저항했으며, 주령이 '자매복'을 두드리자 100여 명이나 되는 토우(泥偶)같은 '아리'의 부하들을 조종하여 병풍처럼 그 목소리

52) “我抽出腰間的克利斯劍，一個箭步奔上前，將劍尖直指住峇爸的心窩，舉頭望向天空，抬高嗓門大聲祈禱：“蘭雅姐姐，請你的靈魂依附到我劍身上來，擔任我的守護天使，引導我的劍尖，對準澳西老頭的右胸第七肋骨下方，他的罩門所在，請我朱鶴一劍結束他的性命吧！” … “這一刀是替苦命的伊曼殺的！” … “這一刀是為依思啟娜報仇！” … “這一劍，是善良可愛的普南族女孩阿美霞請託我刺的！” … “這血淋淋的一刀，是專為蒲拉蓬和她那個無辜，生下來就失去母親的孩子刺的！” … “這一劍，代表新迦南第七天國後宮的七十二位婆羅洲原住民女孩。敬愛的峇爸，您去死吧！” … “這一刀，代表我朱鶴個人！” …… 這回他真的死了 … 如今再也不能讓白魔法師威廉·澳西借屍還魂復活。”(《朱鶴書》，777-778쪽.)

를 막아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주링이 밀리는 순간에 까만 개 ‘히땀’이 아오시의 남은 눈을 공격하고 사라졌다. 위 인용문은 두 눈을 잃은 아오시의 법력이 약해진 틈을 타 주링이 오른쪽에 심장이 있는 아오시의 영혼을 처단하는 장면이다. 전투가 끝나자 달이 떠올랐고, 《코란》에 나오는 ‘제7천국’(소아국)에 모인 소녀들과 아이들이 주링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자 주링은 고향인 타이완을 향해 출발하는 것으로 보르네오에서의 모험이 종결된다. 그리고 타이완으로 돌아온 주링은 보르네오에서의 모험을 중산당의 청중들에게 보고하고, 다시 보르네오로 돌아가 ‘소아국’을 재건하며 살겠다는 인사를 건넨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르네오에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서사의 맥락에 근거하면 크게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실사 절대악인 ‘아오시’를 완전히 처단했다 하더라도, 본고의 2장에서 살펴봤듯이 보르네오에는 내방자를 ‘신이 보내 준 사람’으로 환대하는 원주민들이 남아있다. 제임스 브룩, 아오시, 황인 마녀 주링을 환대했던 사람들인데, 이후 또 누군가를 환대하지 않는다는 장담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심지어 리용핑은 백인-화인-원주민과의 관계도 다시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주민을 ‘식민 공모자’로 제시했는데, 이들이 새로운 내방자의 공모자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새로운 내방자가 어린 소녀를 유린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르네오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주링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와 ‘자매복’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작가로서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 설정을 고민해봤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보르네오 토착민과 내방자가 역사에서 전해오는 방식과는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일 것이다.

또한 ‘케찰코아틀’ 신화를 변용하여 황인 마녀가 주도하여 ‘평화로운 제7천국’을 재건하는 것으로 종결했는데, 아무리 황인 마녀가 백인 성인 남성과 다르더라도 결국 보르네오의 평화와 혼란은 외부에서 오는 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은가? 주링을 통해 ‘새로운 전설’을 탄생시키고자 했다면, ‘백인 신’ 신화를 단순히 차용할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고 재구성했

어야 할 것이다. 백인→황인, 성인 남성→어린 소녀로 대체되면 다 해결된다는 근거는 저절로 마련되지 않는다. 오늘날 학자들이 아메리카의 ‘케찰코아틀’ 신화를 비판적으로 볼 것을 당부하는 이유는, 원주민의 구술전승을 문자문화권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 스트레오 타입으로 고착되어 전승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찾기 위한 노력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점을 일깨우고자 함이다.⁵³⁾

불행과 평화도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고 그 역사도 외부인이 기록(또는 전달)한다는 발상이, 보르네오에 관한 서사를 통해 ‘속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가짐인지 선뜻 동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리용평은 3부곡을 마무리하는 《주령의 모험》에서, 억압받은 자를 대신해서 그 장소에 없었던 제3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속죄를 하고자 했던⁵⁴⁾ 초기 문제의식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시켜 주류(백인)의 시각과 담론을 의심하고, 보르네오의 일원인 화인의 시각으로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했어야 했다.

갈등을 해소시키는 서사과정에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두 번째 지점은, 주령이 칼을 휘두르며 한 말, (인용문 8번째 줄)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아기”에서 찾을 수 있다. ‘아오시’에게 끌려가서 첫 번째 ‘신 가나안’에 도착했던 푸라평은 강간당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주령이 이런 푸라평을 만나 해산을 도운 것은 ‘쇼엔’여관을 빠져나와서 ‘황인 마녀’라는 명성을 얻기 전 그 사이에

53) 김윤경에 의하면, ‘케찰코아틀’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상을 띠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하얀 피부에 붉은 수염’이 사람 형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주민이 가리키는 ‘테오틀’이 ‘신’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의 중에 있으며, 이 신화가 멕시코 정복 이후에야 피렌체 고문서에서부터 여러 문헌들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스텍 제국의 몰락 원인: 전염병인가? 신화인가?> 참고) 김윤경과 같이 아스텍 제국 내부에 이미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정복자인 스페인과의 협력으로 드러났다고 보는 시각으로는 미겔 레온-포르티야 엠크, 고헤선 옮김, 《정복당한 자의 시선: 원주민의 관점에서 본 스페인의 아스텍아 정복》(문학과학지성사, 2015)을 참고하시오. 미겔의 이 견해는, 스페인의 멕시코 정복 과정을 원주민의 시각에서 보여줌으로써 1959년 학계와 언론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그러므로 리용평은 헨콕(백인 작가)의 책만 참고했다고 볼 수 있다.

54) 張錦忠, <記憶, 創傷與李永平小說裏的歷史: 重讀《婆羅洲之子》與《拉子婦》>, 《揚子江評論》(2013.5期), 33쪽.

일어났다. 비록 강간으로 얻은 아이였지만 푸라평은 엄마로서 그 아이를 주령에게 안전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금황색 머리칼에 새파란 눈동자를 가진 푸라평의 아이는 '아오시'를 빼닮은 '마귀같은 아이(魔鬼嬰兒)'였다. 아무리 푸라평이 부탁했다 하더라도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고 기묘한 웃음을 띠고 있는 아기, 자신을 비웃는 듯한 파란 눈동자의 아기가 너무나 소름끼쳤던 주령은, 결국 화교 도시에 있는 산타마리아 성당 앞에 아기를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푸라평의 장례를 위해 돌아왔다.⁵⁵⁾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더이상 작품을 통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오시'의 영혼이 완전히 죽은 뒤에도 이 아이는 누군가의 손에서 자라서 제2의 아오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경우 소설의 대단원에서처럼 '제7천국'의 평화가, 보르네오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물론 성당 앞에서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일찍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40여년의 창작 생활 동안 많은 장편소설을 써냈고, 《주령의 모험》만 하더라도 2010년부터 5년에 걸쳐 쓴 작품임을 감안해 보면,⁵⁶⁾ 플롯 상에서 구조적으로 빈틈이 많은 작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리용평이 《주령의 모험》을 마무리 지은 방식에 근거해서, 그가 '보르네오 3부곡'을 통해 방랑하던 마음의 눈을 떠서 사물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見山又是山)'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란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르네오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타이완에서도 자신이 상상하던 '문화 중국'을 찾을 수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리용평은, 이 고통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피안으로 도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3부곡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인 주령이 100년간 보르네오를 떠돌던 악을 징계한 뒤, 전설의 '소아국'에서 안식을 찾게 되는 마무리를 보면 그러하다. 현세적 삶과 별개인 극락 같은 것이 따로 존재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자신(또는 남성)의 욕망을 처단함으로써 평화가 도래한다는 인식은, 내면의

55) 《朱鶴書》, 608-646쪽.

56) 《朱鶴書》, 13쪽.

‘편치 않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무엇을 제거하기만 하면 자기가 바라는 어떤 신성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고통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번뇌 안에서 얻는 것이며 번뇌와 함께 하는 것이다. 붓다인데도 여전히 괴로움을 겪으며,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해탈은 세속적 삶과 별개인 천국 같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명상을 통해 허덕이는 내적 감정을 전과 달리 더 잘 감내할 수 있는 자아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행위이다.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할 만한 것으로 바꾸어가라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⁵⁷⁾이다. 이런 점에서 리용평이 《주림의 모험》에서 보여준 갈등 해소 방식은 다소 가볍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깨달음을 통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제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로 플롯 구조상 ‘아오시’는 죽었지만 그와 푸라평 사이에서 태어난 ‘마귀 아기’의 행방이 의문으로 남아있지 않은가.

‘見山又是山’은 정체성으로 인한 고민이든 고행 상실로 인한 불안감과 공허함이든, 사실은 이 자체가 비실재적인 것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될 것이다. 거울처럼 현실을 명징하게 보되 이것을 과도하게 실제로 여기지 않게 되었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약간의 비틀기를 통해 세상을 대하는 프레임이 바뀌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질 수 있을 뿐이다. ‘見山又是山’의 핵심은 결국 내가 겪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것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하는 이치를 마음에 담는 데 있다.⁵⁸⁾

리용평이 18세에 쓴 <보르네오의 아들>은, ‘홍수’라는 갑작스런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원주민과 혼혈 화인 사이의 갈등을 쉽게 화해시켜버리고 정부

57) 이진경, 《불교를 철학하다》(한겨레출판, 2016), 150쪽.

58) 마크 엡스타인 저, 이성동 옮김, 《트라우마 사용설명서》(불광출판사, 2014), 147쪽.

의 정책에 호응하는 듯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⁵⁹⁾ 하지만 <보르네오의 아들>과 《주링의 모험》을 대조해 보면, 만약 리용핑이 '타자성'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빠져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 그 고통을 감내하고자 했더라면, 인간이란 모든 규정성을 통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규정성(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타인에 따라 매번 새롭게 설정되므로 원래가 유동적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동을 하는 이주자들뿐만 아니라 한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일의 과제처럼 삶 속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국적 정조'의 상품성과 다른 방식으로 제3의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세계 어디를 돌아다니더라도 내 마음이 어느 하나에만 달라붙어 있으면 이것은 '정착'에 가깝고, 한 곳에 달라붙어 있더라도 항상 회오리치는 마음으로 번뇌에 시달린다면 '유동'과 '불안'에 가깝듯이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본고가 살펴본 결과, 리용핑의 초기 문제의식은 오히려 생애 후반부에서 많이 쇠퇴했다고 생각한다. 서툴지만 <보르네오의 아들>에서는 최소한, 지금 여기 보르네오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긍정할 만한 것으로 바꾸어나가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으니까 말이다.

4. 마치며

《주링의 모험》은 표면적으로 보면, 성인 사회를 거부하면서 이미 구축되

59) 李有成, <《婆羅洲之子》: 少年李永平的國族寓言>, 《見山又是山: 李永平研究》(麥田出版, 2017), 38-54쪽, 田思, <書寫婆羅洲vs. 砂華文學: 田思電台訪談摘錄>, 《星洲日報》(2008.6.29.), https://www.sinchew.com.my/content/content_602272.html(최종검색일 2020.1.23.) 田思의 경우, 리용핑과 장구이싱(張貴興)같은 말레이시아 출신 작가들이 사라왁의 현실과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화인문학'과 독립적으로 '사라왁 화인문학'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기획이 세계 독자를 설득하려면, '누가' 쓴다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보르네오에서의 타인들과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관계를 꿈꾸는 자가 쓴 것'이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어 있는 법칙을 비판하는 듯해서 '反성인으로서의 아동문학'처럼 보인다.⁶⁰⁾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달아나서 어린이만의 세계(보르네오의 소아국)를 건설하고자 한 점도 그러하다.

하지만 주링의 시선과 작중 역할, 모험 과정을 살펴본 결과, 판타지 아동소설의 취지와 반대로, 사악하지만 전능하신 아버지의 질서⁶¹⁾를 내재화하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주링이 중산당으로 돌아와서 멋지게 차려입은 타이베이 중산층 '여사님들(女士們, 仕女們)'에게 자신이 '향불 계승(香火傳承: 제사 전승이 가능한 남성 후계자를 의미)'의 임무를 다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했는데,⁶²⁾ 사실 아동문학은 상징계(the symbolic)의 임무를 완수하면서 성장한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 문학이 가지고 있는 관습성을 무시하거나 뒤집을 수 있는 전복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글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을 '여사님들'이 청중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링의 모험》은 어린이 독자를 위해 쓴 것도 아니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변화무쌍함을 즐기는 어린이 같은 어른을 위해 쓴 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순적인 것을 불편해 하는 것은 중산층 중년 부인에 국한된 것도 아닐진데, 중산당의 청중을 '여사님들'로 한정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아쉬운 마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리용평이 사망하기 전에 완성한 마지막 작품(<신협녀도>는 미완성)인 《주링의 모험》을 통해서, 그의 남성 중심적 세계관과 정형화되거나 순수한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그의 문학을 구조화된 질서의 세계인 상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 질서를 거부하거나 낡은 관습을 뒤흔드는 기호계(the semiotic)를 기웃거리는 선에서 그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적 측면에서 리용평은 기존 질서를 흔들리기보다 너무나 성실하

60) 이수진, <영국 판타지 동화: 半성인과 反성인으로서의 어린이> (전남대학교 영문과 박사학위논문, 2009), 79쪽.

61) 黃錦樹, <流離的婆羅洲之子和他的母親, 父親: 論李永平的'文子修行'>, 《見山又是山: 李永平研究》, 72-75쪽. 황진수는 일찌감치 리용평의 서사가 '어머니 찾기'가 아니라 '아버지 찾기'에 무게 중심이 놓여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62) 《朱鶴書》, 780쪽.

게 中文을 수련하여 출중한 中文을 선보였다.⁶³⁾ 또한 이 작품이 ‘주링’과 ‘소아국’을 통해 상징계를 거부하고 反성인으로 살아가는 기호계적 세계를 선보였다고 하기에는 주링 캐릭터가 보여주는 아버지와의 동일시적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작가의 바람과 달리 상징계에서 기호계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와 타자의 공감’은 동일시의 감수성이라기보다 ‘타자의 타자성에 공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때의 공감은 타자성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포함한 느낌이며, 이 느낌을 통해 나와 타자 사이에 놓인 관계의 변화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런 점에서 리용핑의 작품이 대륙은 물론 다른 중국어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읽히고, 사망 전까지 수상 이력이 화려한 것을 의식한다면, 다소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⁶⁴⁾ 현재 세계의 문화는 혼성혐오와 혼성애호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다.⁶⁵⁾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인 세계화 시대에 타인과 마주칠 경우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내가 살고 있는 장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기존의 질서를 화려하게 포장하여 반복한다면 문학의 효용은 어디에 있겠는가?

리용핑이 직시하기 꺼려했던 서구 식민 권력에 맞서 피 흘리는 투쟁을 통해 자신들을 지켜내고자 냈던 파푸아뉴기니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다루면서도 백인/비백인의 정형화된 식민적 관계를 뒤집는 작품도 이미 있다.⁶⁶⁾ 또한 성인

63) 高嘉謙, <性, 啓蒙與歷史責務: 李永平《大河盡頭》的創傷和書寫>, 앞의 책, 200쪽. 高嘉謙은 리용핑이 ‘가독성이 좋은 중국어 문장’을 쓰기 때문에 중국 대륙에서도 인정받는 화인 작가가 되기에 유리했다고 본다.

64) 《大河盡頭》(上·下)는 2014년 중국 대륙에서 주관하는 제3회 ‘中山杯’ 華僑華人文學獎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으며, 리용핑은 이 상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대륙을 방문했다. 《朱鶴書》는 2015년에는 제19기 國家文學獎을, 2016년에는 제40기 金鼎獎 圖書類文學獎을 받았다. 그리고 2016년에 리용핑은 제6기 全球華文文學星雲獎 공헌상을 받았으며, 제11기 ‘타이완대학을 빛낸 교우상’을 받았다.(高嘉謙 編, 《見山又是山: 李永平研究》, 326-327쪽.)

65) 지그문트 바우만, 《소비사회와 교육을 말하다》(현암사, 2017), 7-16쪽.

66) 차희정, <원주민 소녀, 백인 소년을 만나다: 성장, 상상력 그리고 폭력의 기억이라는 관

남성에게 일찍부터 성적 대상화되어 상처받는 소녀들이 많은 현실을 고발하면서도, 그 소녀를 미국 남성들이 가장 꺼려하는 ‘용’으로 변신시킴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 작품도 이미 많이 읽히고 있다.⁶⁷⁾ 판타지 아동문학의 세계에서는, 리용평의 생각처럼 처녀로 상징되는 ‘순수성’만이 역사로부터 받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은 아니다. 알고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의 한계에 묶이지 않는 유일한 길은 상상력뿐이다. 자유로운 형식을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창작 공간은 현실 세계와 다르다.

< 參考文獻 >

- 李永平, 《朱鶻書》, 麥田出版, 2015.
- _____, 《大河盡頭(上·下)》, 麥田出版, 2008, 2010.
- _____, 《李永平自選集 1968-2002》, 麥田出版, 2003.
- 陳芳明, 《臺灣新文學史(下)》, 麥田出版, 2011.
- 高嘉謙 編, 《見山又是山: 李永平研究》, 麥田出版, 2017.
- 陳大為, <躍入隱喻的雨林: 導讀當代馬華文學>, 《誠品好讀》 13期, 2001.8.
- _____, <當代馬華文學的三大板塊>, 《2003海峽兩岸華文文學學術研討會》, 中歷: 南亞技術學院通識教育中心, 2003.12.
- 黃錦樹, <石頭與女鬼: 論《大河盡頭》中的象徵交換與死亡>, 《臺灣文學研究學報》 第14期, 2012.4.
- _____, <漫遊者, 象徵契約與卑賤物: 論李永平的《海東春秋》>, 《中外文學》 30卷10期, 2002.3.
- 黃美儀, <漫遊與女性的探索: 李永平小說主題研究>, 國立政治大學中國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3.
- 田 思, <書寫婆羅洲vs.砂華文學>, 《星洲日報》 2008.6.29.
https://www.sinchew.com.my/content/content_602272.html

점에서 로이드 존스의 《미스터 펄》 읽기>, 《미래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참고.

67) 한혜정, <용, 어린이, 여성: 어슬러 르 쿨의 《테하누》의 반가부장주의와 소녀의 변신>, 《새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2010.5) 참고.

- 李有成, <婆羅洲之子: 少年李永平的國族寓言>, 《婆羅洲之子與拉子婦》, 麥田出版, 2018.
- 劉雯慧, <修復與超越: 論李永平《朱鶴書》的創傷原址>, 《中國文學研究》第44期, 2017.7.
- 林娜吟, <華語語系的多鄉書寫: 李永平作品中的“中國”, 臺北與婆羅洲>, 《文藝爭鳴》6期, 2016.6.
- 伍燕翎·施慧敏 整理, <用小說對人生說對不起: 李永平放談錄(下)>, 《星洲日報·文藝春秋》(2009.3.22.), www.sinchew.com.my/content/content_1133390.html
- 詹閔旭, <華語語系的跨國連結: 臺灣-馬華文學>, 《臺大文士哲學報》第78期, 2013.
- 張錦忠, <記憶, 創傷與李永平小說裏的歷史: 重讀《婆羅洲之子》與《拉子婦》>, 《揚子江評論》2013.5期.
- _____, <書評: 從《朱鶴書》到李鵠書, 未完的武俠夢, 逝去的武林: 評李永平的《新俠女圖》>(2018.8.6.), <https://www.openbook.org.tw/article/p-19482>
- _____, <在那陌生的城市: 漫遊李永平的鬼域仙境>, 《中外文學》第30卷第10期, 2002.3.
- 그레이엄 헨콕 저, 이경덕 옮김, 《신의 지문(상)》, 까치, 1996.
- 김은영, 《동남아 여행 글쓰기와 포스트식민주의 비평》, 심산, 2011.
- 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 한국학술정보(주), 2009.
- 마크 엠스타인 저, 이성동 옮김, 《트라우마 사용설명서》, 불광출판사, 2014.
- 매리 하이듀즈 저, 방장식·김동엽 공역, 《동남아의 역사와 문화》, 솔과학, 2012.
- 모로 미야 저, 김경아 옮김, 《전설 일본: 일본문화의 근원》, 일빛, 2010.
- 미겔 레온-포르티야 엮음, 고혜선 옮김, 《정복당한 자의 시선: 원주민의 관점에서 본 스페인의 아스테카 정복》, 문학과지성사, 2015.
- 수전 J. 네피어 저, 임경희·김진용 옮김, 《아니메: 인문학으로 읽는 저패니메이션(‘아리카’에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까지)》, 루비박스, 2005.
- 스티브 길버트 저, 이순호 옮김, 《문신, 금지된 패션의 역사》, 르네상스, 2004.
- 오종우, 《예술적 상상력: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힘》, 어크로스, 2018.
- 이진경, 《불교를 철학하다》, 한겨레출판, 2016.
- 조흥국 외, 《동남아의 화인사회》, 전통과현대, 2000.
- 지그문트 바우만, 《소비사회와 교육을 말하다》, 현암사, 2017.
- 케니스 페이더 저, 박성우 옮김, 《사기, 신화 그리고 불가사의: 고고학에서 본 과학과 사이버 과학》, 서경문화사, 2008.

- 하네다 마사시 저, 이수열·구지영 옮김, 《동인도회사와 아시아의 바다》, 선인, 2012.
- 김윤경, <아스텍 제국의 몰락 원인: 전염병인가? 신화인가?>, 《서양사연구》 제42집, 2010.4.26.
- 이수진, <영국 판타지 동화: 半성인과 反성인으로서의 어린이>, 전남대학교 영문과 박사학위논문, 2009.
- 차희정, <원주민 소녀, 백인 소년을 만나다: 성장, 상상력 그리고 폭력의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로이드 존스의 《미스터 팝》 읽기>, 《미래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
- 한혜정, <용, 어린이, 여성: 어슬러 르 권의 《테하누》의 반가부장주의와 소녀의 변신>, 《새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10.5.
- 及川 茜, <李永平《大河盡頭》の寓意>, 《野草》 第94號, 2014.8.
- Derek Freeman, "Pringle, *Rahahs and Rebels: The Ibans of Sarawak Under Brooke Rule 1841-1941* Book Review", *Journal of Asian Studies*, May.1, 1971.
- Mary Somers Heidhues, *Golddiggers, Farmers, and Traders in the "Chinese Districts" of West Kalimantan, Indonesi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Abstract>

The Study of "Zhuling's Adventure in Borneo" Written by Li, Yongping:
Wandering at the Door of the Semiotic World in the Symbolic World

Koh, Woonsun

Li, Yongping (1947-2017) was born in Kuching Province, Sarawak State, in the northern part of Borneo Island. He was an author who published his first work in 1966 and moved to Taiwan to continue his creative activities until 2017.

"The Indigenous Aunt(拉子婦)"(1968), written by Li, Yongping before 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received a favorable evaluation by extending the

viewpoint of the ethnic Chinese people that used to be focused only on the home country (China) and publicizing the complex issue sealed within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The 'Borneo Trilogy' that belongs to the later works of Li, Yongping, including *In the End of a Big River*(大河盡頭), is also on the extension of such critical mind.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ritical viewpoint of Li, Yongping on the position of the ethnic Chinese between the colonial ruler/colonized, man/woman, and perpetrator/victim relationships in the stage of 'mountains are not mountains, and waters are not waters, 見山不是山, 見水不是水' came to a stalemate instead of finding a new way out of the 'relationship' with other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events and the personality and development of the girl who leads the story.

First off, Li, Yongping stressed the point that natives were also 'colonial cooperators' and disregarded the relationship with 'the ethnic Chinese and the indigenous people' that was considered in early works. Parts of the colonial history of Borneo overlap with the colonial history of Taiwan. However, the unique political system of Islam in Southeast Asia in the 14th and 15th centuries and the tribe system of natives differed from the powerful, centralized dynasty system of China. Therefore, Li can be evaluated as to have removed the complicated historical context by simply describing natives as 'colonial cooperators' by homogenizing them with the ethnic Chinese. Further, Li failed to remove the hierarchy of ra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by describing the Polynesian tattoo culture as the perspective of East Asians, or 'tattoo=stigma.'

Through the 'adventure of a girl,' Li, Yongping tried to show an atonement process different from *Drizzling Sleet*(雨雪霏霏) and *In the End of a Big River*. However, the female hero of Zhuling's Adventure in Borneo had to be a premature girl who already experienced the first menstrual period. Li was obsessed about 'purity' symbolized by the 'virginity' of the girl. Also, unlike *Wizard of Oz* that Li, Yongping attempted to use as a reference, the 'growth' of girls who form a relationship with 'Zhuling' does not occur. The more critical

flaw is that the limited womanhood of Li, Yongping was shown by the rite of passage undergone by 'Zhuling.' Similar to how male heroes undergo the rite of fighting against dragons in various myths, 'Zhuling' faced the danger of being 'raped.' Zhuling avoided this danger by sudden cries (for instance, 'Be careful!' and 'Run away!') of other characters instead of learning how to use a 'sacred object, 神物.' Accordingly, *Zhuling's Adventure in Borneo* is a work that reflects a male-oriented view on women, just like earlier works of Li, Yongping, despite the fact that it illustrates a female hero.

Lastly, Li borrowed the myth of 'Quetzalcoatl' that appears in *Fingerprint of the Gods* by Graham Hancock without criticism, conveying a message that the peace and chaos of Borneo are decided by outsiders. Feeling painful because he could not rest in Borneo or find 'cultural China' of his imagination in Taiwan, Li probably believed that he could only escape from this pain by fleeing to a state of enlightenment that does not exist in this world. However, the anxiety and hollowness about 'identity' are only resolved after realizing the fact that human beings exist through regulation, but such regulation (identity) is changeable and unstable because it is constantly reestablished by others. In the process of 'seeing objects as they are, 見山又見山' Li failed to realize that 'what' I am experiencing is not as important as how I 'relate' to what I experience.

Key words: Indigenous people identified with the ethnic Chinese, Colonial cooperator, Polynesian tattoo culture, girl hero without growth, the myth of 'white Gods' become stereotypes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1. 31.	2020. 2. 10.	2020. 2. 22.	2020. 2. 25.	2020. 3. 31.

